



필사본 『花郎世紀』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 王室 世系

The Destruction of Daegaya and the Royal Line Viewed from the Point of Hwarangsegi(『花郎世紀』) Manuscript

저자 (Authors)	鄭東樂 Jung, Dong-Lak
출처 (Source)	한국고대사탐구 9 , 2011.12, 5-42 (38 pages) Sogang Journal of Early Korean History 9 , 2011.12, 5-42 (38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고대사탐구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91523
APA Style	鄭東樂 (2011). 필사본 『花郎世紀』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 王室 世系. 한국고대사탐구, 9, 5-4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30 15:5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필사본 『花郎世紀』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 王室 世系*

鄭 東 樂**

- I. 머리말
- II. 대가야의 멸망과 ‘加耶叛’
- III. 대가야의 王室 世系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6세기 이후 대가야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加耶叛’의 실상, 대가야의 왕실 세계 등에 대해 기존의 사서와 필사본 『화랑세기』를 비교·검토해본 것이다. 이를 통해 대가야사를 새롭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를 고민해보았다.

대가야의 멸망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등에서는 560년, 562년(진흥왕 23) 9월 혹은 정월 등으로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61년에 대가야가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加耶叛’과 관련하여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57년(진흥왕 18)에 신라가 대가야를 일차적으로 정벌했으며, 이후 반란을 일으키자 561년에 완전히 진압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대가야가 일으킨 ‘반란’은 ‘대가야 부흥운동’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대가야와 신라의 대외관계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겪었던 듯하다. 522년 결혼동맹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양국이 대등한 관계였으나,

* 이 글은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제18회 월례발표회(2011.6.25)에서 발표한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본 대가야사’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대가야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후에는 신라가 대가야를 附庸國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529년 결혼동맹의 파탄 이후 신라는 대가야 지역을 점차 잠식하였다. 그리고 557년 대가야를 정벌하여 실질적인 부庸국으로 만들었고, 561년 ‘가야반’을 계기로 완전하게 병합하는 수순을 밟아 나간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존의 사료에서는 6세기 이후 대가야의 왕실 世系에 대해 異腦王과 嘉實王, 道設智와 月光 등이 어떠한 계승관계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비해 필사본 『화랑세기』는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522년 결혼동맹을 체결한 이뇌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찬실이었다. 찬실왕은 于勒으로 하여금 가야금 12곡을 작곡케 했던 가실왕으로 추정된다. 찬실을 이어 즉위한 嗣王은 도설지왕이었다. 도설지는 월광과 다른 인물이었으며, 오히려 도설지왕은 대가야 부흥운동을 이끄는 과정에서 월광과 대립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필사본 『화랑세기』는 異腦王→贊失王(嘉實王?)→道設智王으로 이어지는 대가야 왕실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 필사본 『화랑세기』, 대가야, 신라, 이뇌왕, 찬실왕, 도설지왕, 월광

I. 머리말

1989년 필사본 『화랑세기』가 발견된 이후 그 眞僞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었다.¹⁾ 이처럼 진위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까닭으로, 그간 고대사 연구에서 이 책을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는 대가야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 책에는 6세기 이후 대가야사의 전개 과정에 대한 자료들도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료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의문점을 보완해주기도 한다. 따라서 필사본 『화랑세기』에 기록된 대가야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1) 권덕영,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논쟁 10년」, 『韓國學報』99, 一志社, 2000; 李熙眞, 「최근 제기된 『花郎世紀』 필사본 조작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探究』5, 2010.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간 필사본 『화랑세기』를 대가야사 연구에 활용한 연구자로 이종욱과 임범식 등이 있었다²⁾ 그 외에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경우도 눈에 띈다³⁾ 하지만 대가야사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대가야사와 관련된 내용은 연구사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의 소위 식민사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은 소개하면서도, 정작 필사본 『화랑세기』나 그 속에 수록된 대가야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만약, 이 책이 南堂 朴昌和의 僞書라고 하더라도 일제강점기에 우리 손으로 쓴 대가야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연구사적, 사학사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필사본 『화랑세기』는 진위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대가야사 연구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서는 대가야사 연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加耶叛’의 실상, 대가야의 王室 世系 등에 대해 기존의 사료와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그를 필사본 『화랑세기』와 비교해보기로 한다. 이를

2)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林範植, 「伽耶史 연구와 『화랑세기』」, 『伽耶文化』15, 2002.

3) 李炯基,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金台植, 「사금갑(射琴匣) 설화의 역사적 이해」, 『民俗學研究』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4) 가야사 혹은 대가야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한 논고는 다음이 참고된다. 이영식,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고대사입문』2, 신서원, 2006; 주보돈,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연구상의 跳躍을 기대하며-』, 고령군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남재우,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韓國古代史研究』61, 한국고대사학회, 201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대가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8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발표요지문, 2011.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한 大加耶像이 기존의 사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사료가 부족한 대가야사를 보완할 수는 없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한다. 대가야사를 새롭게 해석해볼 여지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하는 논리에 따라 논지를 전개하려고 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다.

II. 대가야의 멸망과 ‘加耶叛’

1. 기존의 사료를 통해 본 대가야의 멸망과정

『삼국사기』 본기와 지리지, 열전 斯多舍전 등에 의하면 대가야는 562년(진흥왕 23) 신라의 공격에 의해 멸망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고개를 가웃거리게 된다. 예컨대, 562년 9월에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를 토벌했으며, 그 이유는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대가야가 562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멸망당했으며,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완전히 토벌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서기』에서도 대가야의 멸망 시점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사료를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대가야의 멸망 시점과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장황하지만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① 진흥왕 23년(562) 9월 加耶가 반란을 일으켰다(加耶叛). 왕이 異斯夫에게 명하여 토벌케 하였는데(討之), 斯多舍이 副將이 되었다. 사다함은 5천의 騎兵을 이끌고 앞서 달려가 梅檀門으로 들어가서 白旗를 세우니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사부가 군사를 이끌고 이르자 일시에 모두 항복하였다. 전공을 논함에 사다함이 으뜸이었으므로, 왕이

良田과 포로 200명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다함이 3번이나 사양하였다. 왕이 굳이 주므로 이에 받아 生口는 풀어 양인이 되게 하고 토지는 戰士들에게 나누어 주니, 國人이 이름답게 여겼다.(『삼국사기』권5, 신라본기5, 진흥왕 23년 9월조)

- ② 진흥왕이 伊滄 異斯夫에게 명하여 加羅國(加羅는 加耶로도 썼다)을 습격하게 하였다(襲加羅國). 당시 斯多唵은 나이가 15~16세였는데,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은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명하여 貴幢裨將로 삼았는데, 그 郎徒 중에서 따르는 자 또한 많았다. 그 나라 경계에 이르자 元帥에게 청하여 그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梅檀梁(전단량)은 성문의 이름이다. 가라말로 門을 梁이라고 했다고 한다)으로 들어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움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서 드디어 그 나라를 멸하였다. 군사가 돌아오자, 왕은 공을 책정하여 加羅人 300口를 주었다. 이를 받아서 모두 풀어 놓아 주고 한 사람도 남겨 놓은 것이 없었다. 또한 田地를 하사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왕이 강권하므로 闕川의 不毛地를 주도록 청할 따름이었다.(『삼국사기』권 44, 열전4, 斯多唵전)
- ③ 高靈郡은 본래 大加耶國이다. 시조 伊珍阿跋王(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道設智王까지 무릇 16世 520년이였다. 眞興大王이 쳐서 멸망시키고(侵滅之) 그 땅을 大加耶郡으로 삼았다. 경덕왕이 改名하여 지금에 이른다.(『삼국사기』권34, 지리1, 고령군조)
- ④ 欽明 23년(562) 정월에 신라가 任那官家를 쳐서 멸하였다(打滅).(다른 책 [一]에서는 21년(560)에 임나가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합하여 임나라고 하지만 구별해서 말하자면 加羅國·安羅國·斯岐國·多羅國·卒麻國·古嵯國·子他國·散半下國·乞滄國·稔禮國으로 합하여 十國이다.) (『일본서기』欽明紀 23년조)
- ⑤ 구형왕. 金氏로 正光 2년(521)에 즉위하여 42년 동안 다스렸다. ①保定 2년 壬午(562) 9월에 신라 제24대 군주인 진흥왕이 군대를 일으켜 가까이 다가와서 치므로(興兵薄伐) 왕이 친히 군졸을 부렸으나, 중과부적으로 대전할 수 없었다. 이에 同氣 脫知爾此수를 보내어 나라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王子와 上孫인 卒支公 등은 항복하여 신라에 들어갔다. … 『開皇錄』에서는 梁 中大通 4년 壬子(532)에 신라에 항복하였다고 하였다. … 論하여 말

한다. 『三國史』에 의하면 仇衡王이 梁 中大通 4년 壬子에 국토를 바쳐 신라에 투항한 즉, 수로왕이 처음 즉위한 東漢 建武 18년 壬寅(42)으로부터 구형왕 말년 壬子(532)에 이르기까지 헤아리면 490년이 된다. 만약 이 기록으로 생각하면 국토를 바침이 元魏 保定 2년 壬午(562)인 즉, 다시 30년을 더하여 총 520년이다. 이제 두 가지를 적어둔다(『삼국유사』 권2, 기2, 「가락국기」)⁵⁾

사료 A는 『삼국사기』, 『일본서기』, 『삼국유사』 등에서 대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기사들을 제시한 것이다. A-①은 562년 9월에 ‘加耶가 叛하여’ 신라에서 토벌(討)했다고 한다. A-②에서는 진흥왕이 가락국을 습격(襲)했다고 한다. A-③에서는 대가야가 서기 42년을 기준으로 562년까지 16世 520년간 존속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진흥대왕이 침략하여 멸망시켰다(侵滅)고 한다. A-④에서는 562년 정월에 임나관가를 쳐서 멸하였다(打滅)고 하였으나, 또 다른 자료(一本)를 제시하면서 560년에 멸망했다(滅)고도 하였다. 한편, A-⑤는 김해 금관가야의 멸망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 중 밑줄을 친 ①부분만은 대가야의 멸망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추정기도 한다.⁶⁾ 여기서는 562년 9월에 진흥왕이 군대를 일으켜 정벌(興兵薄伐)했다고 기록되었다.

이상 사료 A에서 제시한 대가야의 멸망과정은 ‘가야가 叛하자 진흥왕이 군대를 일으켜 정벌했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신라의 대가야 정벌에 대한 표현도 討, 襲, 侵, 打, 伐 등으로 사료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다.

5)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제10대 구형왕 … … 辛丑(521)에 즉위하여 43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中大通 4년 壬子(532)에 영토를 바치고 신라에 투항하였다. 수로왕 壬寅(42)으로부터 壬子에 이르기까지 합하여 490년간이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가락국의 멸망 시기에 대해 착오가 보인다. 금관가야의 세계에 대해서는 홍순창의 논고가 참고된다(洪淳稔, 『金官國의 世系에 대하여』, 『三國遺事』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83).

6) 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震檀學報』81, 1996, 25쪽.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길이 없다. 특히, 대가야의 멸망 시점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서 562년 9월이라는 사료가 주요 자료로 선택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서기』에서와 같이 562년 정월 혹은 그 2년 전인 560년이라는 사료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가야의 멸망 시기는 크게 562년 9월의 한국 측 자료와 562년 정월 혹은 560년 등의 일본 측 자료로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대가야의 멸망 시점과 그 원인으로 지목된 ‘加耶叛’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먼저, 562년 9월을 대가야의 멸망 시점으로 보는 견해들이다. 이는 ‘가야반’을 『삼국사기』 찬자의 불찰로 인한 가필로 보거나, 대가야를 정벌하기 위한 ‘명분의 필요’에 의한 왜곡, 혹은 대가야가 반란을 일으킨 나라는 ‘신라인들의 인식’으로 파악기도 한다. 반면, ‘가야반’의 기록과 『일본서기』를 토대로 대가야가 562년 이전인 560년에 멸망한 적이 있거나, 사실상 멸망한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도 한다.⁷⁾ 원 사료의 혼란이 학계의 논란으로 연결되고 있는 셈이다.

2.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加耶叛’의 실상 : 561년의 대가야 부흥운동?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에서 혼란을 보이는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가야반’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그를 해결할만한 구체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사본 『화랑세

7) 朱甫暎,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4, 1982, 184~186쪽;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307~309쪽; 이희진, 『加耶政治史研究』, 學研文化社, 1998, 201~204쪽; 이영호, 「대가야의 멸망과 고령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338~341쪽; 李炯基, 앞의 책, 2009, 126~129쪽.

기』의 5세 사다함조와 8세 문노조에는 대가야의 멸망과 관련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B-① 나이 12살에 文弩를 따랐는데 擊劍에 능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좋아했다. … 開國 11년(561) [4자 결락] 兩花공주가 죽었다. 嗣王인 道設智가 野女로서 [2자 결락] 月光과 더불어 영토를 다투어 野人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 [진흥]帝가 棼宗公(이사부)에게 명하여 진압토록 했다(鎭之). 사다함이 선봉이 될 것을 청했으나, 帝는 사다함이 어리기에 허락하지 않았다. 사다함은 이에 사사로이 그 郎徒를 거느리고 몰래 갔다. … … 野人을 대파하니 제가 훌륭하게 여겨, 사다함을 貴幢裨將으로 삼았다. 그 때 나이가 16살이었다. 精兵 5천을 거느리고 梅檀門으로 달려 들어가 白旗를 세웠다. 가야 [5자 결락] 그 성을 ʔ하고 도설지와 아녀를 포로로 하였다. [7자 결락] 군이 계속하여 이르러 가야군을 대파하였다. [결락] 그 공으로 田地를 하사하자 부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포로로 한 生口는 모두 良人으로 하였다. 대왕은 더욱 중하게 여겼다. 關川의 전지를 주자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고 불모지 수백 頃을 선택하였다.(필사본 『화랑세기』5세 斯多舍조)⁸⁾

② 伽耶가 反하자 斯多舍이 동행을 청했다. 文弩가 말하기를 “어찌 어미의 아들로 外祖의 민을 괴롭힐 수 있겠는가?” 했다. 마침내 가지 않았다. 國人 중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자, 사다함이 “나의 스승은 義人이다”고 했다. 가야에 들어가 함부로 죽이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 그 뜻에 보답했다. … … 開國 4년(554) 공이 17세에 武力을 따라 백제를 쳤다. … … 5년(555) 北漢으로 나가 고구려를 쳤다. 7년(557) 國原(충주)으로 나갔고, 또 北加羅를 정벌하였다(伐北加羅). 모두 공이 있었으나, 보답을 받지 못했다.(필사본 『화랑세기』8세 文弩조)⁹⁾

필사본 『화랑세기』는 발견 후 현재까지 대가야사 연구자들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대가야의 멸망과 관련된 B의 자료도 마찬가지로

8) 이종욱, 『대역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소나무, 2005, 59~61쪽. 이하의 인용문도 모두 이종욱의 역주본을 이용하였다.

9) 이종욱, 위의 책, 2005, 119~121쪽.

지이다. 다만, 임범식은 “신라는 대가야를 멸망시키는 5년 전인 557년에 북가야 즉 대가야를 쳐서 항복을 받고 부용으로 삼았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 대가야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멸망시키고 영도합병을 이루었던 사정을 확연히 알 수 있다”¹⁰⁾고 하였다. 반면, 이형기는 “필사본 『화랑세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멈추지 않아,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주목해보아야 할 내용임에 분명하다”¹¹⁾고 하였다. 즉, 필사본 『화랑세기』를 주목한 경우에도 단순한 소개에 그쳐 자세한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면 B를 통해 대가야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B-①에서는 진흥왕이 이사부로 하여금 대가야를 진압토록(鎭) 한 시기를 개국 11년인 561년(진흥왕 22)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의 자료 A에서 본 대가야의 멸망 시기인 560년과 562년(9월 혹은 정월)과는 다른 멸망 연도이다. 대가야를 공격한 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료와 마찬가지로 B-②에서도 ‘加耶反’이 제시되어 있다. ‘가야반’을 계기로 사다함이 종군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사는 4세 二花郎(조)에서도 보인다.¹²⁾ 이는 앞에서 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加耶叛’과 동일한 내용이다. 요컨대,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대가야의 멸망 시점을 561년으로, 대가야를 진압한 이유로는 ‘가야반’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B에서는 ‘가야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전 시기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점령당한 시점까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1차적으로 정복당한 시점은 8세 文弩(조)에서, “문노가 557년 북가야를 정벌(伐)했다”는 것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의거한다면, 북가야(북가야·대가야)는 557년(진흥왕 18)에 신라에 의해 일차적으로 정벌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林範植, 앞의 논문, 2002, 196쪽.

11) 李炯基, 앞의 책, 2009, 129쪽 주) 158.

12) 이종욱, 앞의 책, 2005, 41쪽.

대가야의 이너왕은 522년 백제의 東進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와의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신라는 대가야를 자신들의 부용국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阿利斯等’으로 대표되는 대가야권 내부의 반발을 빌미로 신라는 529년 돌연히 동맹을 파기하고, 국경의 8개성을 점령하면서 대가야 지역을 잠식하기에 이르렀다.¹³⁾ 뒤이어 532년에는 대가야와 함께 가야의 양대 축을 이루었던 금관가야가 신라에 항복하였다.¹⁴⁾ 상황이 이렇게 되자, 530년대 전반 무렵 이너왕의 숙부였던 贊失이 이너왕을 축출하고 즉위하였다. 찬실의 즉위에 대한 신라 측의 내정 간섭이 있었으나, 왕위는 유지되었던 듯하다.¹⁵⁾

찬실왕은 혹시 가야금을 창제한 嘉實(悉)王이 아닌가 모르겠다. 가실왕은 우륵에게 가야금 12곡을 작곡하게 할 당시, “여러 나라의 方言이 각각 다르니 聲音으로서 가히 하나로 통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諸國方言各異 聲音豈可一哉)¹⁶⁾라고 한 대목이 주목된다. 이는 음악을 통해 좁게는 대가야, 넓게는 가야 사회 전체를 통합코자 하였음을 의미하며,¹⁷⁾ 유교적 예악사상을 통해 정치개혁과 왕권강화를 목표로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⁸⁾ 이로써 본다면 찬실왕(가실왕)은 즉위 후 신라의 내정 간섭에서 벗

1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9년조; 『新增東國輿地勝覽』卷29, 高령현 건치연혁조; 『日本書紀』繼體紀 23년 3월조 필사본 『화랑세기』에 전하는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검토기로 한다.

1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9년조.

15) 필사본 『화랑세기』8世 文弩조; 이종욱, 앞의 책, 2005, 116~139쪽. 찬실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6) 『三國史記』卷32, 雜志1, 樂, 가야금조.

17) 노중국, 『대가야 문화의 특징』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31쪽, 權珠賢, 『大加耶의 音樂과 그 思想的 背景-加耶琴을 中心으로-』 『대가야의 정신세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9, 97~104쪽.

18) 정동락, 『于勒의 생애와 활동-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42, 200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79~280쪽.

어나 왕권의 안정화와 새로운 외교노선을 견지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대가야는 520년대 백제의 東進에 대응하여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으나, 신라의 西進政策으로 인해 빛을 바랬다. 따라서 530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에 가실왕(찬실)의 가야금 창제와 12곡의 작곡으로 대표되는 대가야권 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540년대에 들어오면서 대가야는 점차 백제와 밀착되고 있었다.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541년과 544년에 백제 주도로 개최되는 2차례의 泗泚會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이렇게 대가야가 친백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우륵이 신라로의 망명을 결행하였다. 우륵의 망명 이유에 대해 『삼국사기』에서는 “及其國亂”, “其國將亂”²⁰⁾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 대가야의 정세를 평가한 언급으로 보인다. 우륵의 망명은 친백제파에 의해 친신라파가 거세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여겨진다.²¹⁾ 그 시기는 대체로 540년대 후반기 즈음이었다.²²⁾

55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고구려와 백제·가야·신라의 3국 연합군이 치열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었다. 551년 백제의 성왕이 신라, 임나(가야)와 더불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점령하였다. 그 결과 백제는 한강하류, 신라는 한강상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553년(진흥왕 14) 신라는 백제 동북부 변경지역을 급습하여 한강하류도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新州를 설치하고 아찬 武力을 군주로 임명함으로써, 한강유역 전체를 신라가 점거해버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성왕

19) 『日本書紀』欽明紀 2년 및 5년 11월조.

20)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2년조 및 『三國史記』卷32, 雜誌, 樂, 가야금조.

21) 이영호, 「于勒 12곡을 통해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려궁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104~108쪽.

22)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287쪽.

은 553년 10월 王女를 시집보내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기도 했으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554년(진흥왕 15)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해 백제 성왕(明纘)은 加良(대가야)와 등과 연합하여 管山城을 공격하였다. 처음에는 백제·가야 연합군이 승기를 잡은 듯하였지만, 武力이 新洲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원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 결과 백제 성왕이 전사하고 佐平 4명과 함께 29,600명이라는 대군이 참살되었다.

관산성 전투에 대가야가 어느 정도의 군대를 파견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倭의 원군 수가 1,000명이었고, 백제가 1만명의 군사를 보내서 임나를 도울 것이라고 한 것 등으로 보아,²³⁾ 대가야에서 대군이 참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 뒤 555년 정월에 比斯(창녕)에 완산주 설치, 557년에 김천에 甘文州 설치, 그리고 561년에는 진흥왕이 직접 창녕을 순수²⁴⁾하였다.²⁵⁾

540년대 이후 대가야는 백제로 기울어 있었다. 특히 관산성 전투에서 대가야·백제·왜의 연합군이 신라와 일전을 벌였는데, 이 전투에 대가야로서는 국운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이러한 대가야의 친백제·반신라적 행보에 대해 신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을까. 기존의 사료에서는 그 모습을 찾기 어려운데, B-②에서 보이는 문노의 행적을 통해 이를 추측해볼 수 있다. 문노는 554년 “무력을 따라 백제를 쳤다”고 한 점으로 보아 관산성 전투에 참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555년에는 “北漢으로 나가 고구려를 쳤다”고 하는데, 『삼국사

23) 『日本書紀』欽明紀 15년 12월조.

24) 昌寧碑는 신사년(561) 2월 1일 건립되었다(盧鏞弼,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 1996, 27쪽).

25) 朱甫墩, 앞의 논문, 1982, 176~180쪽; 남재우, 『가야 말기 于勒의 신라망명』, 『약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흥익대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09, 131~151쪽; 李炯基, 앞의 책, 2009, 121~124쪽.

26) 남재우, 위의 논문, 2009, 151쪽.

기』 본기에는 “이 해 10월 왕이 北漢山에 순행하여 강역을 넓혀 정했다”고만 전한다. 그리고 557년에는 “國原으로 나갔다가, 북가라를 정벌했다”고 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본기에는 “국원을 小京으로 삼고, 甘文州를 설치했다”고만 전한다. ‘북가라 정벌’과 ‘감문주 설치’가 모종의 관련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²⁷⁾

특히, 557년 신라의 북가라 정벌 기사는 A-①의 ‘가야반’의 실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가 혹시 그 단서가 되지 않을까?

C. 智度路王(지증왕) 때 沿邊官이 되어 居道の 匹를 따라 馬戲로써 加耶國(혹은 加羅라고 한다)을 속여 취하였다(取之). [지증왕] 13년(512) 임진에 이르러 阿瑟羅州 軍主가 되었다.(『삼국사기』卷44, 열전4, 異斯夫臣)

사료 C는 『삼국사기』의 이사부 열전 중 가야국(가라)을 취하였다는 기사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사부가 가야를 점령한 시기가 512년(지증왕 13) 이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가야국 정벌 기사는 신라본기의 지증왕조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를 가야연맹 가운데 일부를 점령한 것으로 추측하거나,²⁸⁾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562년 대가야의 멸망 즈음의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²⁹⁾

흥미로운 점은 『삼국사기』 본기에서는 562년 대가야 정벌 당시 異斯

27) 주보돈은 “555년 완산주의 설치, 557년 사벌주를 감문주로 移置한 주목적이 대가야의 병합이었으며, 이후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하는데 5년이란 시간(562년)이 소요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한다(朱甫暉, 앞의 논문, 1982, 185쪽). 즉, 557년을 대가야 병합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 시기로 파악하였다. 필사본 『화랑세기』는 557년에 대가야를 일차로 정벌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8) 鄭求福 외, 『譯註 三國史記』4-주석편 하-,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698쪽.
29) 권주현, 『개정판 가야인의 삶과 문화』, 해안, 2009, 282~284쪽; 정동락, 앞의 논문, 2009, 291~292쪽.

夫가 主將이 되어 출전했던 것으로 기록되었으나(A-①), 그의 열전에는 이에 대해 언급이 없다. 그 대신 사다함 열전에는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이사부의 행적을 기록한 그의 열전에서 대가야의 정벌과 같은 ‘중요한 사건(?)’이 누락된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C를 대가야 정벌과 관련된 사료로 억측해볼 수도 있어 보인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의 본기와 사다함 열전 등을 비교해 보면, 562년 당시의 전투 상황과 C의 내용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즉, 사다함이 선봉으로 전단문에 백기를 꽂은 사실과 馬戲를 전략으로 이용한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료가 이사부가 대가야를 점령할 당시의 상황을 전하는 내용인지는 하되, 562년 ‘가야반’과 관련된 시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까? 이런 몇 단계에 걸친 억측들을 거친다면, C는 필사본 『화랑세기』가 제시한 557년 대가야의 정벌과 관련된 사건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³⁰⁾

居道는 탈해왕 때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의 국경에 군사를 모아 놓고 말놀이(馬技)를 해 긴장을 풀어놓은 뒤 불의에 급습하여 두 나라를 병합했다.³¹⁾ 이사부도 沿邊官이 되어 거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야를 점령하였다. 그렇다면 이사부의 신라군은 557년 대가야와 대치하면서, 馬戲놀이로 경계심을 풀어놓고 기습적으로 공격해 정벌한 것은 아닐까? 또, 이 전투에 이사부와 함께 문노가 참전했던 것이 아닌가 억측된다.

557년 신라의 北加羅(대가야) 정벌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와

30) 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512년 이전 정벌한 가라국을 대가야로 단언할 근거가 부족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제시되었다. 실제, “대가야를 멸망시키는데 主將으로 출전한 異斯夫의 열전에서 그의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이렇게 억측한 것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이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31) 『三國史記』卷44, 列傳4, 居道傳.

연합했던 대가야에 대한 응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관산성 전투의 패배 후 겨우 3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가야는 신라의 침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사부의 마희 전략에 휘말려 대가야는 신라에 정벌됐을 법하다. 요컨대,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대가야는 554년 관산성 전투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557년 일차적으로 신라에 정벌되었다. 이 전투의 主將은 이사부였고, 마희 전략을 구사하여 대가야의 방어망을 무력화시켰다. 여기에 문노가 참전하였고, 공을 세웠던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당시 대가야를 이끌었던 찬실왕은 557년 신라의 대가야 정벌로 인해 폐위되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찬실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道設智였다. 이는 B-①에서 “嗣王 道設智”라는 구절에서 파악할 수 있다. 도설지가 월광을 제치고 즉위할 수 있었던 것은, 557년 이전에 부왕인 찬실을 이어 즉위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³²⁾ 아마 찬실은 554년 관산성 전투의 패배 이후 557년 신라의 대가야 정벌 사이에 사망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557년 신라의 정벌 당시 대가야의 왕은 도설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때는 신라가 대가야를 완전히 복속하지는 않고 국체의 유지는 인정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대가야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완전한 복속에 대한 백제의 반발 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던 대가야가 561년에 반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는 연도는 다르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도 제시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신라본기에서는 ‘가야반’에 대한 구체

32) 도설지와 월광은 음상사 등을 근거로 동일 인물로 보아왔으나(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5~26쪽,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2002, 253쪽),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서로 다른 인물이다(林範植, 앞의 논문, 2002, 195쪽).

적인 사실이 전하지 않는 데 비해,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B-①). 대가야는 도설지를 중심으로 신라에서 이뇌왕에게 시집온 양화공주의 죽음을 계기로 군대를 일으켰던 듯하다. 즉, “開國 11년(561) [4자 결락] 양화공주가 죽었다. 嗣王인 道設智가 野女로서 [2자 결락] 月光과 더불어 영토를 다투어 野人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전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여기서 도설지가 결락한 야녀야인 등은 왜의 여자왜인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³³⁾ 그렇다면, 도설지는 양화공주가 죽자 왜와 결탁하여 군대를 끌어 들여 월광과 다투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554년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대가야왜의 연합군이 신라와 대립하고 있었다. 또, 도설지의 어머니는 야국왕녀였던 것으로 보이므로,³⁴⁾ 그도 야녀와 혼인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도설지가 야인(왜)의 군대를 끌고 왔을 가능성은 충분하며, 그 배후에는 백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562년 7월에 “백제가 신라 변방을 침략했으나 신라에 패하여 1천명이 죽거나 사로잡혔다”고 한 뒤, 9월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켜 정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⁵⁾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건대 백제의 신라 변방 침략과 ‘가야반’은 별개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있

33) 이종욱, 앞의 책, 2000, 439쪽; 이종욱, 앞의 책, 2005, 60쪽 주) 18.

34) 필사본 『화랑세기』 8세 文弩조에서는 異腦王을 쫓아내고 자립한 贊失이 野國王의 사위가 되어 文華공주를 낳았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 5세 斯多舍조에는 도설지가 찬실을 이은 嗣王으로 언급되었고, 도설지가 野女와 함께 野人을 거느리고 月光과 다투었다고 한다(이종욱, 위의 책, 2005, 61쪽). 따라서 도설지와 문화는 찬실왕과 야국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35) 이에 대해 이영호는 “(진흥왕 23년) ‘九月’은 ‘正月’의 잘못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대가야 정벌부터 사다함의 포상까지 합쳐진 사료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동 7월조의 기사가 『삼국사기』 권27, 백제본기에서는 1년 앞인 561년 7월조에 들어있다”고 지적하였다(이영호, 앞의 논문, 2008, 341쪽 주) 5). 562년 9월은 정월의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日本書紀』 欽明紀 23년 정월조의 대가야 멸망 기사를 염두에 둔 듯하다.

다.³⁶⁾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는 위덕왕 8년인 561년 7월에 백제가 신라의 변경을 침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⁷⁾ 동일한 사건을 두고 신라본기와 백제본기 사이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수록되어 있는 모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혹시 신라본기의 562년 7월의 기사가 실제로는 561년 7월에 배치되어야 하는데, 착오나 다른 이유로 인해 562년 7월에 잘못 수록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면 신라본기 진흥왕 23년(562) 9월의 대가야 반란과 멸망 기사는 실제로는 진흥왕 22년(561)의 사건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필사본 『화랑세기』와 신라본기의 대가야 멸망 시점에 대한 1년의 시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즉,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제시한 561년의 ‘가야반은 역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³⁸⁾

36) 金泰植은 “신라는 대가야에 대해 부용관계 정립에 치중하였고 대가야도 명목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대가야가 신라로부터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고 신라는 이때를 틈타 대가야를 아예 멸망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한다(金泰植, 앞의 책, 1993, 309쪽). 이희진은 “대가야는 관산성 전투 이후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백제로서는 신라를 견제하면서 가야에 대해 일종의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전투에서 패배하자 가야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백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신라가 이를 역이용하여 고령가야를 배신하고 기습했다”고 한다(이희진, 앞의 책, 1998, 213~214쪽). 요컨대, 562년 7월의 전쟁에 대한 대응을 김태식은 “대가야가 신라로부터 독립코자 했다”고 보았고, 이희진은 “대가야가 백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37)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8년조.

38) 물론 반대로 백제본기의 561년 7월 기사가 실제로는 562년 7월의 잘못된 가능성도 있다. 즉, 김영심은 “『창왕명사리감』의 발견으로 백제에서는 躰年稱元法이 행해진 듯한데 『삼국사기』에서는 卽位年稱元法을 채택함으로써 1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백제본기의 기록은 562년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도설지가 월광과 대치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아쉽게도 필사본 『화랑세기』(B-①)를 통해서도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라에서는 도설지가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반란은 신라 측의 시각으로 대가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와 백제 등의 지원을 배경으로 ‘대가야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억측되기도 한다. 도설지와 월광의 대치는 561년 양화공주가 사망하자 발생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양화공주 死後 신라에서 도설지를 대신해 월광을 새로운 왕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것에서 기인한 사건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반면, 도설지는 야인(왜)과 연합하여 대가야 부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신라에 대항했던 것으로 억측되기도 한다. 그 배후에서 백제가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삼국사기』 본기에서 562년 7월(혹은 561년 7월)에 “백제가 신라 변방을 침략한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³⁹⁾ 즉,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가야반은 도설지에 의해 주도된 대가야 부흥운동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해석된다.⁴⁰⁾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270쪽 주) 83). 그럴 개연성은 충분하며, 그렇다면 백제본기와 신라본기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1년의 시차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553년(진흥왕 14, 성왕 31)의 양국 왕실간의 혼인, 577년(진지왕 2, 위덕왕 24) 10월의 전투기사 등은 시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가야 멸망 직전의 기사만 유독 1년의 시차가 생기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글의 심사과정에서 “『삼국사기』가 신라 위주로 서술된 사료로 신라본기가 백제본기보다 더 정확하므로, 백제본기보다 신라본기의 시점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물론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삼국사기』내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주의를 요하며, 이러한 모순점을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바로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39) 이희진은 “백제가 가야와 협력하여 신라에 대항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이희진, 앞의 책, 1998, 212쪽). 하지만,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대가야가 야인과 백제 등과 협력하여 신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0) 김병남은 진흥왕 23년 9월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설지의 대가야 부흥운동이 발발하자 진흥왕은 즉시 태종(이사부)에게 명하여 진압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 사다함이 선봉을 청하였으나 어리다는 이유로 허락되지 않았는데, 사사로이 낭도를 이끌고 종군하여 野人을 대파했다. 이에 진흥왕이 貴幢裨將으로 삼았으며, 정병 5천을 거느리고 전단문에 백기를 세우고, 도설지와 야녀를 포로로 삼았다. 뒤이어 이사부의 본대가 도착하여 가야군을 대파하였다고 한다(B-①).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보이는 신라의 대가야 진압 과정은 A-①②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발견된다. 우선 『삼국사기』 본기와 열전에는 진흥왕이 사다함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참전을 허락하지 않다가 그 뜻이 확고하여 ‘귀당비장(부장)’으로 삼아 출전시켰다. 이에 비해,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사다함이 몰래 출전하여 야인을 격파하자 귀당비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귀당비장이 된 시기의 선후에서 차이가 난다. 사다함이 거느린 군사를 전지는 기병 5천이라고 했으나, 후지는 정병 5천이라고 하였다. 또, 『삼국사기』에서는 사다함이 전단문으로 들어가 백기를 세우자 황망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대가야가 항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필사본 『화랑세기』에는 야인을 대파하고 전단문으로 들어가 백기를 세우고 성을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560~562년 정월 사이에 신라가 가야 전역에 적극 진출함으로써 지주권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이에 대가야는 백제와 협의를 통해 독립을 유지하려 했고, 이를 기회로 백제는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치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군사 행동에 치중하지 못하는 백제의 태도와 왜군의 패배로 연합 전선은 실패로 끝났고, 이를 기회로 신라는 대군을 동원하여 기습으로 대가야를 함락시켰다”고 한다. 즉, “위덕왕은 신라의 가야 지역 진출에 따라 대가야와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대가야를 구원하기 위한 군사력을 동원하였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김병남, 『百濟 威德王代의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韓國上古史學報』43, 2004, 68쪽 및 70~71쪽). 이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557년 대가야에 대한 1차 정벌설 및 561년 멸망설과 비교해 볼 때, 연도에서만 차이가 있고 거의 유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함락한 뒤 도설지와 아녀를 포로로 삼았음에도 저항을 계속하자 이사부의 본대에 의해 대과 당했다고 한다. 『삼국사기』보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좀 더 대가야의 저항에 무게를 두었고, 도설지와 아녀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포로가 된 도설지와 아녀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아마, 경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거나 대가야 왕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徙民 되었을 법하다.⁴¹⁾ 신라로서는 대가야 부흥운동을 주도한 도설지와 아녀, 추종세력들을 온존시키는 것은 부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도설지 등과 대립하였던 월광으로 대표되는 친신라세력들은 재지세력화하여 신라의 대가야 故土에 대한 지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村主層을 형성하고 大加耶那의 통치에 참여하였을 것이다.⁴²⁾ 대가야 멸망 이후 도설지와 관련된 사료는 전하지 않는 반면, 월광과 관련된 사적⁴³⁾이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이유였을 것이다.

대가야를 멸망시킨 후 신라에서는 논공행상이 뒤따랐다. 당시 전공을 논할 때 사다함이 으뜸이어서 진흥왕이 포상으로 가라인(대가야인) 포로 200명(혹은 300명)과 토지를 주었다. 사다함은 이를 사양하고 포로는 양인으로 풀어주고 토지는 전사들에게 나누어 주자, 국민들이 아름답게 여겼다고 한다(A-①②). 『삼국사기』의 본기와 열전 등에서는 사다함이 대가야 사람들을 양인으로 방면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필사본 『화랑세기』(B-②)를 통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즉, 대가야는 사다함의

41) 신라는 대가야를 멸망시킨 이후 지배세력을 타 지역으로 徙民했을 것이라고 한다(李炯基,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方向-東海市 湫岩洞古墳群 出土品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38, 2002; 李炯基, 앞의 책, 2009, 211쪽).

42) 이문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고려』,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156쪽.

43) 『新增東國輿地勝覽』卷30, 陝川郡 佛宇條의 月光寺 및 古跡條의 舉德寺.

스승인 문노의 ‘外祖의 나라’였기 때문에 郎徒들에게 가야에 들어가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하여 그 뜻에 보답했다고 한다. 이로 보아 그가 포로가 된 대가야 사람들을 풀어준 것도, 스승인 문노를 배려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B에서는 문노의 대가야에 대한 입장 혹은 행동에 모순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는 557년 북가라(대가야)를 정벌할 때에는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고 한다. 한데, 561년 대가야의 반란을 진압할 때에는 외조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다고 하면서 참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다함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義人’이라고 칭송했지만, 문노의 이중적인 대응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⁴⁴⁾

또, 사다함이 귀당비장에 임명된 이유도 모순점이 보인다. B①에서는 그가 야인을 대파한 공으로 귀당비장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4세 二花郎조에는 이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D. (二花郎)공은 이에 [只召]태후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兔菴공의 아우인 斯多菴은 나이가 아직 장년에 이르지 않았는데 스스로 郎徒를 거느렸으니, 자못 國仙이라고 이를 만합니다”고 했다. 태후가 이에 궁중에 불러 음식을 내리며 사람을 거느리는 방법을 물으니, 사다함이 말하기를 “사람을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 뿐입니다”라고 했다. 태후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말하여, 貴幘禪躬을 삼아 宮門을 관장하게 했다. 그 날도 천명도 충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필사본 『화랑세기』4세 二花郎조)⁴⁵⁾

D에서 사다함이 귀당[비장]이 된 것은, 태후가 왕에게 말해 귀당비장

44) 문노는 557년처럼 대가야의 응징이라는 명분이 있다면 참전할 수 있었으나, 명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561년의 부용국을 병합국으로 만드는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조경란 선생[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기사에 의함).

45) 이종욱, 앞의 책, 2005, 39쪽.

으로 삼아 공문을 관장케 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순은 사다함조와 이화랑조가 서로 다른 사료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에서 발생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상에서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가야반’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가야의 멸망 시점에 대해서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57년(진흥왕 18) 신라에 의해 1차로 정벌당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신라에 복속된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가 유지되는 상태였던 듯하다. 이후 대가야는 561년(진흥왕 22) 嗣王인 도설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신라의 정벌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고 말았던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가야반’은 실제로는 ‘대가야 부흥운동’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Ⅲ. 대가야의 王室 世系

1. 기존의 사료를 통해 본 대가야의 왕실 세계

대가야는 금관가야와 함께 가야 사회를 주도한 대표적인 국가였다. 대체로 5세기를 기점으로 전기에는 금관가야가 후기에는 대가야가 가야 사회를 이끌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나라는 각기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신화를 창출하였으며, 멸망 과정도 서로 달랐다. 전자가 항복을 택했다면 후자는 끝까지 저항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멸망 이후 두 나라의 지배층이 걸었던 길도 사뭇 달랐다. 금관가야의 지배층은 신라 진골귀족으로 편입되어 지배층으로서 지위를 굳혀 나갔지만, 대가야는 타 지역으로 사민되거나 제거됨으로써, 그 후손들이 신라 내부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대비되는 양상은 두 나라의 왕실 世系도 마찬가지로이다. 금관가야는 시조인 首露王에서 10대 仇衡王까지 490여년 간의 세계와 혼인 관계가 전해져온다.⁴⁶⁾ 일연은 『삼국유사』의 ‘王歷편’에 신라, 고구려, 백제와 함께 駕洛國을 편입하였으며, “가락국은 伽耶로 지금의 金州”라고 적시하고 있다. 일연은 삼국과 함께 가야를 왕력에 포함시켰으나, 금관가야만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가야 사회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반면, 대가야의 王系는 “16世 520년”이라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시조에서부터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의 세계가 정리되어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단편적인 자료를 통해 대가야 왕실 세계의 일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대가야의 왕실 세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적인 연구가 있다. 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 天神 夷毗訶之와 加耶山神 正見母主 사이에 제1세인 伊珍阿歧王(惱室朱日=內珍朱智)가 태어났다. 그리고 3~4세에는 錦林王이, 6~7세에는 荷知王(=嘉實(悉)王)이 있는데, 가실왕은 하지의 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8세에는 異腦王(加羅已富利知伽)가 있으며, 9세에 道設智王(=月光태자)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異腦王과 道設智王 사이에는 이녀왕과 가야인 왕비 사이에서 태어나 신라에게 정벌당한 왕이 재위하였다. 그는 도설지와는 이복 형제였다. 도설지왕(월광태자)은 540년에서 550년 사이에 신라로 망명하여 신라의 귀족으로 활동하다가,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격파된 후 반감을 무마하기 위하여 대가야로 파견된 신라의 꼭두각시 왕이었다.⁴⁷⁾

E에서 주목되는 것은 도설지와 월광,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同氣 脫知爾此今을 동일 인물로 파악한 점이다. 즉, “탈자는 ‘도설지’와 음이 통하고, 월광태자의 ‘월광’도 혼동하면 첫음이 ‘달로 되고 거기에

46) 『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

47) 金泰植, 앞의 논문, 1996, 21쪽 및 25쪽; 金泰植, 앞의 책, 2002, 253~258쪽.

존칭 어미인 ‘지’를 붙이면 ‘달지’가 된다. 그러므로 모두 같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대가야 마지막 왕인 도설지를 550년경 단양 적성비에 나오는 禰設智와 561년 창녕비에 나오는 都設智와 동일인으로 파악’하였다.⁴⁸⁾ 하지만, 이는 음상사로 동일 인물의 여부를 파악한 것이며, 대가야의 마지막 왕을 지낸 도설지가 550년경부터 신라의 귀족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그 때문에 도설지와 월광을 서로 다른 인물로 파악하는 연구자들도 많다.

F는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대가야의 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기한 것이다.

- F-① ①高靈郡은 본래 大加耶國이다. 시조 伊珍阿歧王(內珍朱智라고도 한다)으로부터 道設智王까지 무릇 16世 520년이였다.(『삼국사기』권34, 지리1, 고령군조) ②崔致遠의 『釋順應傳』을 살펴보니, 이르기를 “伽倻山神 正見母主가 天神 夷毗訶之에게 감응되어 大伽倻王 惱室朱日과 金官國王 惱室靑齋 두 사람을 낳았다. 뇌질주일은 伊珍阿歧王의 별칭이고 청에는 首露王의 별칭이다”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고령현 건치연혁조) ③ 正見天王祠: 해인사 내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대가야국 왕후 正見이 죽어서 산신이 되었다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0, 합천군 祠廟조)
- ② 百濟記에 말하기를 “... 加羅國王 己本早岐 및 아들 白久至, 阿首至, 國沙利, 伊羅麻酒, 爾汶至 등이 그 人民을 거느리고 百濟로 도망하였다. 백제는 후하게 대우하였다. 加羅國王의 누이 旣殿至가 大倭를 향하여 가서 ... (『일본서기』神功紀 62년조[수정연도 382년] 혹은 [442년])
- ③ 加羅國은 三韓의 종족이다. 建元 원년(479) 國王인 荷知가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쳤다. 詔書를 내려 “도량 넓은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먼 오랑캐가 교화한다. 加羅王 荷知가 바다 밖에서 방문하여 동쪽 멀리서 폐백을 바치니, ‘輔國將軍本國王’을 제수할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다.(『南齊書』, 東南夷傳 加羅國조)
- ④ 錦林王陵 현 서쪽 2리에 옛 무덤(古藏)이 있는데, 세상에서 이르기를 금림

48) 金泰植, 위의 논문, 1996, 25~26쪽.

왕릉이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고령현 고적조)

- ⑤ ①법흥왕 9년(522) 봄 3월, 加耶國王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므로, 왕이 伊滄 比助夫의 누이를 그에게 보냈다.(『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법흥왕 9년조) ㉠ 『釋順應傳』에 이르기를 “大伽倻國의 月光태자는 正見母主의 10세손이요, 그의 아버지는 異惱王인데 신라에게 구혼하여 夷祭 比枝輩의 딸을 맞아 태자를 낳았으니, 이녀왕은 惱室朱日의 8세손”이라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고령현 건치연혁조)
- ⑥ ①이보다 앞서 加耶國 嘉悉王이 12弦琴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 이에 于勒에게 명하여 그 곡을 만들게 하였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의하였다. 그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다.(『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2년조) ㉠ 新羅古記에 말하기를 加耶國의 嘉實王이 중국(唐)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왕이 “여러 나라의 方言으로 聲音이 각기 다르니 이를 어찌하면 하나로 통일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이에 樂師 省熱縣人 于勒에게 명하여 12곡을 작곡케 하였다.(『삼국사기』권32, 잡지, 악, 가야금조) ㉡ 琴谷: 가야금 嘉實王이 악사 우륵에게 중국 秦나라의 箏을 본떠서 琴을 만들고 가야금이라고 불렀다. 현의 북쪽 3리에 있는 지명에 琴谷이 있으니, 世傳에 “우륵이 工人을 거느리고 가야금을 익힌 곳”이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29, 고령현 고적조) ㉢ 道田連씨는 任那國의 賀室王에서 出自하였다.(『新撰姓氏錄』左京 諸蕃 任那조)
- ⑦ ①月光寺. 治爐縣 북쪽 5리에 있다. 세상에 전하기를 대가야 태자 월광이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30, 합천군 불우조) ㉠ 舉德寺. 유허지가 해인사 서쪽 5리에 남아 있다. 최치원의 『釋順應傳』에는 “그 서쪽 산의 양 시냇물이 만나는 옆에 蘭若가 있는데 舉德이라고 한다. 옛날에 대가야 태자 월광이 結緣한 곳”이라고 하였다.(『신증동국여지승람』권30, 합천군 고적조)

F-①에서 대가야는 시조인 이진아시왕에서 도설지왕까지 무릇 16세 5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가야산신 정견모주와 천신 夷毗訶(之)가 감응하여 뇌질주일과 뇌질청예를 낳았는데, 전자는 이진아시왕의 별칭이고 후자는 수로왕의 별칭이라고 한다. 정견모주는 이후에도

대가야 지역에서 신성시되어 조선시대까지 합천 해인사 경내에 정견천왕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16世'라는 표현은 왕대수로 16대의 왕으로 보기도 하고, 후세에 조작된 것으로 파악기도 한다.⁴⁹⁾ 당시의 왕위계승이 부자세습과 함께 형제나 삼촌 등도 즉위했을 터이므로, 16세는 왕의 대수로 불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듯하다. 어쨌든 이를 통해 대가야의 시조와 마지막 왕은 파악이 가능해진다.

F-②는 『일본서기』神功紀의 기사로 연대를 수정하면서 2주갑 인하여 382년으로 보거나,⁵⁰⁾ 3주갑 인하여 442년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⁵¹⁾ 당장 어느 시기를 따를지는 주저되나 가라국왕 己本早岐와 다섯 아들, 그리고 왕의 누이인 기전지의 인명을 알 수 있다. 가라국왕 기본한기는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이었다.

F-③은 479년 대가야왕 하지가 중국 南齊에 사신을 보내어 '輔國將軍本國王'이라는 작호를 받아왔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하지는 가야의 왕으로서 유일하게 중국 남조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지산동44호분이 하지왕의 능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F-④는 고령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다. 지산동고분군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산동47호분(739호분)을 금림왕릉이라고 한다. 흔히 지산동고분군은 시기가 흐름에 따라 主山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축조된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지산동73·75호분→35호분→30·74호분→32~34호분→44호분→45호분 등의 순으로 조영되었다고 한다.⁵²⁾ 이러한 고고학적 성과에 따르면 논리적 비약의 위험이 크지만, 위

49) 金泰植, 위의 논문, 1996, 3쪽.

50) 李文基, 『大伽耶의 對外關係』,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1995, 223쪽; 노중국, 『대가야의 성장기반-4세기를 중심으로-』, 『大伽耶의 成長과 發展』,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2004, 51쪽.

51) 李炯基, 앞의 책, 2009, 108쪽.

52) 李炯基, 위의 책, 2009, 98쪽.

쪽에 있는 금림왕릉이 아래쪽에 위치한 하지왕릉(44호분) 보다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림왕은 하지왕 이후의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도 있다.

F-⑤는 522년 이찬 비조부의 누이와 결혼한 이녀왕과 관련된 기사이다. 이녀왕과 신라왕녀 사이에는 월광태자가 태어났다. 이녀왕은 뇌질주일의 8세손이며, 월광태자는 9세손으로 기록되어 있다.

F-⑥은 우륵으로 하여금 가야금 12곡을 작곡토록 한 가실왕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가실왕의 재위 연대는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우륵은 551년(진흥왕 12) 이전에 신라로 망명하여 충주에 안치되었다가, 娘城(청주)으로 순행한 진흥왕 앞에서 제자인 泥文과 함께 新歌를 연주하였다. 그러므로 최소한 540년에서 55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재위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新撰姓氏錄』(815)에는 “賀室王”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실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⁵³⁾ 가실왕은 嘉實王, 嘉悉王, 賀室王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F-⑦은 합천군에서 전승되던 월광태자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최치원이 해인사를 창건한 순응과 이정의 전기를 찬할 때, 대가야의 건국신화와 월광태자에 대해 서술한 것은 이들이 월광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가야의 마지막 왕으로 도설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전승은 보이지 않는다. 도설지와 월광이 동일인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료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대가야의 왕실 세계는 다음과 같다. 대가야의 시조는 이비가지와 정견모주 사이에 태어난 이진아시왕(뇌질주인, 내진주지)이었다. 이후 382년(혹은 442년) 즈음에 즉위한 왕이 ‘기본’한기였다. 그리고 하지왕은 479년 남제에 사신

53) 金恩淑, 『『新撰姓氏錄』의 加耶系 氏族』, 『韓國古代史論叢』2, 1991, 213~218쪽.

을 파견해 보국장군본국왕의 작호를 받았으며, 뒤이어 금림왕이 즉위했을 가능성도 있다. 6세기에 들어와 522년에는 이뇌왕이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으며 최소한 529년까지는 재위하였다. 이뇌왕과 신라왕녀의 아들로는 월광태자가 있었다. 그리고 54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가야금을 창제한 가실왕이 재위하고 있었던 듯하다.⁵⁴⁾ 대가야가 멸망할 시점의 마지막 왕은 도설지였으며, 월광태자는 왕위에 즉위하지 못했던 듯하다.

2. 6세기 대가야의 왕실 세계

: 이뇌왕→찬실왕(가실왕?)→도설지왕

기존의 사료에서 대가야의 왕들 중 연대가 확인되는 경우는 하지왕(479)과 이뇌왕(522), 그리고 도설지왕(560 혹은 562) 뿐이다. 그 때문에 가실왕의 재위 연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정되어 있다. 이는 우륵의 가야금 12곡 작곡 시기와 맞물리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게 한다. 우륵이 12곡을 작곡한 시기에 대해서는 510년대, 520년대, 530년대, 540년대설 등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실왕을 하지왕으로 보거나 그의 아들로 파악기도 하고, 이뇌왕과 동일 인물로 보는가 하면, 이뇌왕 이후에 즉위한 왕이라고 주장되고 있다.⁵⁵⁾ 그와 함께 도설지와 월광도 동일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별개로 파악되기도 한다. 한데, 필사본 『화랑세기』에

54) 연민수도 가실왕은 연대적으로 이뇌왕 이후에 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연민수, 『輔國將軍·本國王과 金官國』, 『韓日關係史研究』38, 2011, 8~9쪽).

55) 우륵에 대해서는 최근 고령군, 거창군, 의령군 등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저서로 발간하였다(노중국 외,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거창군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우륵 탄생지 규명 학술용역 보고서』, 2007; 김태식 편,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09; 박영록·정운용 외, 『于勒과 省熱』, 경남 거창군·충주대 동아시아연구소, 2011).

는 대가야 왕실의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G-① 法興大帝가 가야를 南北으로 나누고, 異腦를 北國王으로 삼아 兩花公主를 妻로 삼게 하고, 靑明을 南國王으로 삼았다. 얼마 되지 않아 異腦의 숙부인 贊失이 이녀를 내쫓고 自立하였다. 그 때 好助公이 가야에 사신으로 가서 책망했다. … … 이보다 앞서 贊失은 野國王의 사위가 되었는데, 文華公主는 생각하건대 틀림없이 찬실의 딸일 것이다.(필사본 『화랑세기』8세 文祭조)⁵⁶⁾

② 開國 11년(561) [4자 결락] 양화공주가 죽었다. 嗣王인 道設智가 野女로서 [2자 결락] 月光과 더불어 영토를 다투어 野人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 [진흥]帝가 菴宗公(이사부)에게 명하여 진압토록 했다. 가야 [5자 결락] 그 성을 ??하고 도설지와 야녀를 포로로 하였다.(필사본 『화랑세기』5세 斯多舍조)⁵⁷⁾

G-①에서 이녀왕과 비조부의 누이인 양화공주와의 결혼 후 이녀왕의 숙부인 贊失이 이녀를 내쫓고 自立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522년 결혼 동맹을 맺은 이녀왕이 숙부인 찬실에게 축출되었다는 것이다. 찬실왕은 야국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서 문화공주가 태어났다. 또, G-②에서는 양화공주가 죽자, 왕위를 이은 도설지와 월광이 서로 다투었다고 하였다.

G의 자료를 통해 이녀왕 이후에 찬실왕이 즉위하였고, 찬실을 이어 도설지왕이 즉위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설지왕과 월광은 서로 별개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녀왕과 양화공주 사이에는 월광태자와 월화공주가 태어났다. 도설지는 누구의 자식인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찬실과 야국왕녀 사이에서 문화공주가 태어났고 도설지왕이 찬실의 뒤를 이은 嗣王으로 언급된 점, 그리고 야인을

56) 이종욱, 앞의 책, 2005, 116~139쪽.

57) 이종욱, 위의 책, 2005, 59~61쪽.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찬실과 야국왕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도설지와 월광은 숙질간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⁸⁾

이녀왕을 내쫓고 자립한 찬실은 누구였을까. 우륵에게 가야금 12곡을 작곡하게 한 가실왕(혹은 하실왕)이 찬실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贊失과 嘉實(悉)賀室은 음이 서로 통하고, 또 우륵의 망명 시점이 551년 이전이었으므로, 최소한 540년에서 550년대 초반까지는 즉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찬실이 왕으로 즉위하는 시점은 신라와의 결혼동맹이 결렬되는 529년 이후인 530년대 전반 무렵이었을 것이다. 이후 찬실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광이 아니라, 찬실의 아들로 여겨지는 도설지가 즉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설지가 왕으로 즉위한 시기는 필사본 『화랑세기』에서 보이는 557년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하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만약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할 때에 찬실왕이 생존해 있었다면, 신라는 그를 내쫓고 양화공주의 아들인 월광을 즉위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한다면, 도설지는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대가야왜의 연합군이 패배한 이후 557년 신라에 정벌되기 이전에 즉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설지는 554~557년 사이에 즉위했다가, 신라의 공격을 받아 복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는 곧바로 대가야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왕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로서도 대가야를 완전히 복속함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백제의 반발 등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했을 법하다.

58)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하면 522년 대가야의 異腦王과 결혼한 新羅王女는 兩花公主였으며, 이들 사이에 月光과 月華가 태어났고, 道設智는 贊失과 野國王女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추정된다.

이후 도설지는 561년 양화공주가 죽자 아인(왜)을 끌어들이 월광과 대립하면서 대가야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신라의 진압으로 실패하고 자신은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포로로 삼은 도설지와 아녀 등을 타 지역으로 사민했거나 제거하고 그의 추종세력 역시 거세했을 것이다. 대신 월광을 활용함으로써 대가야 지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반신라적인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듯하다. 월광은 신라의 대가야 故地 지배에 협조하면서 여생을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후손들은 대가야 고지인 고령과 합천 등지에서 재지세력으로 유지되었다. 후일 해인사를 창건한 順應과 利貞도 월광의 후손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월광과 관련된 전승들이 고령·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질 수 있었을 법하다.

이상에서 필사본 『화랑세기』는 6세기 이후의 대가야 왕실 세계가 이 뇌왕→찬실(가실왕?)→도설지로 이어졌음을 제시하고 있다.

IV. 맺음말

대가야사 연구에서 지적되는 난제 중의 하나가 관련 사료의 부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료 비판을 통해 『일본서기』를 활용하거나, 고고학의 발굴성과를 이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렇지만 아직 대가야사를 온전히 복원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특히, 서로 다른 내용으로 전하는 사료에 대한 해석과 견해 차이를 좁히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사본 『화랑세기』라는 새로운 자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학계에 소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眞僞 논쟁에 휩싸여 있다. 그간 이 책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료로 이용하는

연구자도 간혹 있었다. 그런데 이 책 속에는 대가야사의 미궁을 밝힐 수 있는 몇몇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토하거나 활용한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책이 僞書라는 주장이 많고, 金大問의 저작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이 책이 대가야사와 관련된 새로운 視覺과 史實을 제시해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필사본 『화랑세기』가 1930~40년대에 朴昌和가 쓴 僞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사나 사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6세기 이후 대가야사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대가야의 멸망 시기와 ‘加耶叛의 실상, 대가야의 왕실 세계 등을 기존의 사서와 필사본 『화랑세기』와의 비교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를 통해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대가야사를 새롭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를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대가야의 멸망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등 기존의 사료에서는 560년, 562년(진흥왕 23) 9월 혹은 정월로 혼란스럽게 기록되어 있다.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61년에 대가야가 멸망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562년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킨 이유를 ‘加耶叛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가야가 이전에 멸망한 뒤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다시 정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562년 이전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필사본 『화랑세기』에서는 557년(진흥왕 18)에 신라가 대가야를 정벌했고, 이후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진압하고 멸망시켰다고 전한다. 아울러, 대가야가 일으킨 반란, 즉 ‘가야 반’의 실상은 ‘대가야 부흥운동’으로 파악될 수도 있어 보인다.

필사본 『화랑세기』에 의거한다면, 6세기 대가야와 신라의 대외관계는 몇 단계의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522년 결혼동맹 이전에는 양

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였으나, 결혼동맹 이후에는 신라가 대가야를 부용국으로 인식하였다. 529년 결혼동맹의 파탄 이후 신라는 대가야 권역에 속한 지역을 점차 잠식하였고, 557년 대가야를 일차적으로 정벌하여 실질적인 부용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561년 ‘가야반’을 계기로 완전하게 병합하는 수순을 밟아 나갔던 듯하다.

한편, 기존의 사료에서는 6세기 이후 대가야의 왕실 世系에 대해 異腦王과 嘉實王, 道設智와 月光 등이 어떠한 계승관계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비해 필사본 『화랑세기』는 비교적 상세한 계승관계를 전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522년 결혼동맹을 체결한 이뇌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왕은 찬실이었다. 찬실왕은 于勒으로 하여금 가야금을 창제하고 12곡을 작곡케 했던 가실왕으로 추정된다. 찬실왕을 이어 즉위한 嗣王은 도설지왕이었다. 학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도설지는 월광과 다른 인물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히려 도설지왕이 대가야 부흥운동을 이끄는 과정에서 월광과 대립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필사본 『화랑세기』는 異腦王→贊失王(嘉實王?)→道設智王으로 이어지는 왕실 세계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필사본 『화랑세기』는 기존의 사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가야사에 대한 새로운 歷史像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이 과연 당시의 사정과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 남은 문제이다. 현재 그에 대한 해답을 당장 찾을 수는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가야사 관련 내용을 본다면, 필사본 『화랑세기』가 완전히 허황되었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사실 여부를 떠나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다.

【참고 문헌】

1. 저서

-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 노용필, 『新羅眞興王巡狩碑研究』, 一潮閣, 1996.
- 이희진, 『加耶政治史研究』, 學研文化社, 1998.
- 이종욱,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김영사, 2000.
- 정구복 외, 『譯註 三國史記』4-주석편 하-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 金泰植,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권, 푸른역사, 2002.
- 이종욱, 『대역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 소나무, 2005.
- 노중국 등,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려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 金泰植 편,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흥익대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09.
- 권주현, 『개정판 가야인의 삶과 문화』, 혜안, 2009.
- 이형기, 『大加耶의 形成과 發展 研究』, 景仁文化社, 2009.
- 박영록 정운용 외, 『于勒과 省熱』, 경남 거창군-충주대 동아시아연구소, 2011.

2. 연구 논문

- 주보돈, 「加耶滅亡問題에 대한 一考察」, 『慶北史學』4, 1982.
- 홍순창, 「金官國의 世系에 대하여」, 『三國遺事』上,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김은숙, 「『新撰姓氏錄』의 加耶系 氏族」, 『韓國古代史論叢』2, 1991.
- 이문기, 「大加耶의 對外關係」,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1995.
- 金泰植, 「大加耶의 世系와 道設智」, 『農壇學報』81, 1996.
- 권덕영, 「필사본 『화랑세기』의 진위논쟁 10년」, 『韓國學報』99, 一志社, 2000.
- 이형기, 「滅亡 이후 大加耶 遺民의 向方-東海市 湫岩洞古墳群 出土品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38, 2002.
- 임범식, 「伽耶史 연구와 『화랑세기』」, 『伽倻文化』15, 2002.
- 金台植, 「사금갑(射鞬甲) 설화의 역사적 이해」, 『民俗學研究』12, 국립민속박물관, 2003.
- 노중국, 「대가야의 성장기반-4세기를 중심으로-」,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 고령군·한국고대사학회, 2004.
- 김병남, 『百濟 威德王대의 정치 상황과 대외 관계』, 『韓國上古史學報』43, 2004.
- 노중국, 『대가야 문화의 특징』,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 이영식,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고대사입문』2, 신서원, 2006.
- 이영호, 『于勒 12曲을 통해 본 大加耶의 政治體制』,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6.
-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 이문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이영호, 『대가야의 멸망과 고려지역의 변화』, 『고령문화사대계』1-역사편-,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 퇴계연구소, 2008.
- 주보돈, 『새로운 大加耶史의 定立을 위하여』,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研究上の 跳躍을 기대하며-』, 고령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8.
- 권주현, 『大加耶의 音樂과 그 思想的 背景-加耶琴을 中心으로-』, 『대가야의 정신세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9.
- 金泰植 편,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09.
- 남재우, 『가야 말기 于勒의 신라망명』, 『악사 우륵과 의령지역의 가야사』,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우륵문화발전연구회, 2009.
- 정동락, 『于勒의 생애와 활동-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4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9.
- 이희진, 『최근 제기된 『花郎世紀』 필사본 조작설에 대한 비판적 고찰』, 『韓國古代史探究』5, 2010.
- 남재우,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韓國古代史研究』61, 2011.
- 연민수, 『韓國將軍·本國王과 金官國』, 『韓日關係史研究』38, 2011.

3. 기타

- 거창군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우륵 탄생지 규명 학술용역 보고서』, 2007.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대가야사야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8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발표요지문, 2011.

Abstract

The Destruction of Daegaya and the Royal Line Viewed from the Point of Hwarangsegi(『花郎世紀』) Manuscript

Jung, Dong-Lak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conventional historical records and Hwarangsegi Manuscript in the aspects of the time of Daegaya's fall, the realities of Gayaban(加耶叛), and the royal line which are the main controversies in the history of Daegaya after the 6th century.

Documents Samguksagi or Ilbonsugi records the time of Daegaya's fall confusingly, such as year 560 or september 562(King Jinheung 23). Hwarangsegi Manuscript suggests that Daegaya was completely destroyed in 561. Also, on the issue of Gayaban, Hwarangsegi Manuscript records that Silla conquered Daegaya in 557(king Jinheung 18), and it quelled a rebellion in 561. The 'rebellion' of Daegaya is from the perspective of Silla, and it seems to be Daegaya's revival movement in essence.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Daegaya and Silla seems to have had several changes. Before the marriage alliance in 522, the two countries were equal, but after the alliance, Silla's view toward Daegaya changed to client country(附庸國). After the end of the marriage alliance in 529, Silla gradually encroached on the regions of Daegaya. In 557, Silla conquered Daegaya to make it Buyongguk, and finally in 561, it completely annexed

Daegaya following the event of Daegaya revival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al records does not clearly explain the succession history of Daegaya's royal line among King Ee Nue, king Ga Sil, Do Sul Ji and Wol Gwang. In contrast, Hwarangsegi Manuscript describes the situation more in detail. According to the Manuscript, Chan Sil rose to crown after king Ee Nue, who secured the marriage alliance in 522. King Chan Sil is assumed to be king Ga Sil, who made Woo Ruk to write 12 music pieces of Gayagum. King Do Sul Ji succeeded Chan Sil. Do Sul Ji was a different person from Wol Gwang, and Do Sul Ji seems to have conflicts with Wol Gwang in leading the Daegaya revival movement. Hwarangsegi Manuscript suggests Daegaya's royal line from king Ee Nue to king Chan Sil(king Ga Sil) to king Do Sul Ji.

Key Words : Hwarangsegi(『花郎世紀』) Manuscript, Daegaya, Silla, king Ee Nue(異腦王), king Chan Sil(贊失王), king Do Sul Ji(道設智王), Wol Gwang(月光)

논문 투고일 : 2011. 11. 8
게재 확정일 : 2011. 12. 5

심사 완료일 : 2011. 12. 2